

환경인의 용기

참된 용기란 “어떤 어려운 일을 해 놓는 것 보다, 하기 쉬운 일을(어떤 신념으로) 하지 않는데 있다”던 말을 기억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높은 산을 정복해 유명해진 사람 보다는 공원의 잔디를 밟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고, 성공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 보다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 천하게 여기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고, 굶어 죽기 꼭 알맞은 처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과 같이 물질 만능의 시대, 이기적인 시대, 그리고 공해(公害) 시대에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은 아닐런지?

1. 용기가 없었다.

흔히 공해의 원인, 즉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인구 증가, 산업 발전, 도시화를 말한다.

이를 용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구 증가만 해도 그랬다. 내가 낳은 자식만이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편협된 사고가 결국 오늘의 인구 과밀을 불러온 것이다.

내것만이 내것이 아니고, 남의 것, 우리의 것도 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들 오늘날과 같은 인구 과잉은 면했었을 것이다.

특히 노후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사내 아이만 원하다 보니 딸 아홉에도 아들 하나 더 낳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하기야 대를 잇는다는 이유, 외롭다는 핑계로 자식 낳기를 쉽게 생각해온 과거를 생각한다면, 요즘의 현실은 대단한 용기랄 수 있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때가 너무 늦었다.

산업 발전의 경우도 그렇다. 어려움을, 불편함을, 적음을 견디는 용기가 없어, 많고, 편하고, 쉬운 것만을 추구해온 결과가 오늘의 산업 발전이고 그에 따른 환경 오염이 공해를 불러왔다.

조금만 인내할줄 알았고, 조금만 현명했던들 오늘의 오염은 없었을 터인데, 용기가 없던 인류는 건디지 못하고, 쉽게 좋게, 많게 사는데만



박창근
(환경보호협회의 회장, 본 연합회 고문)

급급해 왔다.

같은 맥락으로 도시화를 이룬 과정도 남보다 뒤떨어질 줄 아는 용기, 손해볼 줄 아는 용기가 없었던 때문에 이토록 추악하게 비대한 것이다.

2. 지금도 용기가 없다.

용기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없다.

용기가 없음으로 하여 입고 있는 현재의 불안과 피해를 뻔히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다.

아니, 한 술 더떠서 그 용기 없음을 발전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

남이 잘 사니까 우리도 잘 살아야 된다는 괴변, 남의 나라가 GNP가 높으면 내 나라도 GNP가 높아야 된다는 논리..... 그런 잡다한 변명이 진정한 우리의 용기를 꺾고 있으며 그것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용기를 표백해내야 한다.

덤핑 판정을 맞아가면서도 수출 목표액을 달성하려는 만용 보다는 목표액을 훨씬 못 미치더라도 내실있는 수출을 유도하는 용기, 선진국 흉내를 내기 위해 과분한 투자와 개발에 용감하기

가 만드는 미래



환경의 가치를 정당히 평가하고
 환경보호라는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
 세상의 온갖 편협과 쉬움, 그리고
 일시적인 안이(安易)를 외면하고 사는
 환경인! 어찌 용기있는 선구자라
 아니할 수 있으랴?



보다는, 걸 보기 보다 속 살이 여문 나라를 만
 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용기 없는 비겁한 자가 애써 그 비겁함을 감
 추기 위해, 쥐 꼬리만한 금전으로, 걸레 같은 직
 함으로 자신을 위장한데도 그 꼬리와 걸레는 초
 라할 뿐이다.

차라리 뗏뗏이 비겁함을 자인할줄 아는 용기
 가 필요하다. 그래서 후진국임을 부끄러워는 해
 도 감추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쑤시게 하
 나를 수출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표를 뗏뗏
 이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
 한 것이다.

언제까지 만용을 용기라 우기고, 용기 없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을 것인가?

3. 용기있는 환경인

용기 없는 사회에 용기있는 사람이 있다. 환
 경인이다. 계량(計量)할 수 없는 가치를 무한한
 것이라고 착각해 외면하고 있는 어리석은 무리
 들을 깨우치기 위해, 애써 스스로를 희생하는
 환경인!

환경의 가치를 정당히 평가하고, 환경 보호라
 는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 세상의 온갖 편협과

쉬움 그리고 일시적인 안이(安易)를 외면하고 사
 는 환경인!

소외당하고, 때로는 멸시당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보다는 보이지 않는 미
 래를 위해 사는 환경인!

환경보호 운동가, 환경 관리인, 환경 사업가,
 환경 공무원, 환경 교수 등……

어찌 용기있는 선구자라 아니 할 수 있으랴?

특히, 일선에서 환경을 지키는 환경 관리인의
 용기는 눈물겨운 것이다. 생산의 보이는 이익만
 평가하는 사업주를 설득하고, 애써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아직은 사업주의 귀와 눈
 은 뜨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환경 관리인은 승진의 기회를 못 얻
 고 만년 환경 관리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의 어리석음으로 받는 벌을 함
 께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기댈 언덕이 없어 외롭고 슬픈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대로는 아닐 것이다. 결코 외
 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이
 익이 이익인줄 알고, 아직은 쉬운 것이 좋은 것
 인인줄 알고, 아직은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인줄
 알고 있지만……

아주 가까운 장래에 환경의 진정한 가치를 깨
 단게될 것이며, 환경 보호의 당위성을 통감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수고는 보상받을 수 있으
 며,그날이 오면 우리의 희생은 빛날 수있으며,그
 날이 오면 우리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날이 오기까지,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날
 이 오기까지, 애써 참으며 어리석은 자들을 깨
 우쳐야 한다.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날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인의 진정한 용기로……